

가구소득에 따른 부부관계와 자녀가치 및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영아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 비교 연구*

Maternal Parenting Stress of Infants from Different Income Groups :
The Relative Importance of Father Involvement, the Marital Relationship,
and Meanings of Parenthood*

옥경희(Kyunghee Ok)¹⁾
천희영(Hui Young Chun)²⁾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effects of father involvement, marital happiness and conflicts, and meanings of parenthood on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compare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ose variables in three (low, middle, and upper) income group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654 nuclear families which consisted of 3 family members, couple and their infant children aged between 4 months and 10 months. Data was taken from the 2008 Panel Data of Korean Childre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First, maternal parenting stress, father involvement, mother's marital satisfaction and conflict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ccording to income levels. Second, mother's marital satisfaction was the most significant variable in predicting father involvement, and mother's marital conflict was the most significant one in predicting maternal parenting stress. Third, the significance and numbers of variables which were impacted upon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father involvement varied according to income groups. Fourth, in all three income groups, the effects of father involvement on maternal parenting stress was not significant when marital relationship and meanings of parenthood underwent in regression analysis. However, father involvement was impacted upon maternal parenting stress by itself.

* 본 연구는 2011년 광주대학교 연구진흥금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2010년 제1회 한국아동패널학술대회 발표논문임.

¹⁾ 광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²⁾ 고신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Kyunghee Ok, Dept. Early Childhood Education, Gwangju University, 277 Hyodeok-Ro, Gwangju City, 503-703, Korea
E-mail : yundoh@gwangju.ac.kr

Key Words :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maternal parenting stress), 아버지의 양육참여(father involvement), 부부관계(marital relations), 자녀가치(meanings of parenthood), 가구소득(household income).

I. 서 론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부모역할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이 높아지면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도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이다.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는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은 우리나라 부모들이 양육과 관련하여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로 해석할 수 있다. 부모의 높은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발달, 부모의 역할수행이나 심리적 건강, 부모-자녀관계와 부부관계의 긴장 등 가족원과 가족 관계에 부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변인을 밝히려는 노력은 아동학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주 양육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이나 가정의 경제적 형편과의 관계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자원의 공급정도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 때문이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가정하면서도 실제 가구소득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들은 소수에 불과하다(Choi, 2010). 대부분의 가구소득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다룬 연구들은 가구소득을 개인 혹은 가족의 인구학적 변인들 중 하나로 포함시켜 두 변인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그치고 있을 뿐이다. 그렇기에 가구소득에 따른 양육스트레스를 다룬 연구결과들은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않는다. 일부 연구들은 가구소득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데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Chung, 2007; Lee, 2010), 가구소득을 세 집단으로 나누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비교한 결과 하집단의 양육스트레스가 상집단보다 유의하게 높다고 보고하였다(Chung, 200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배우자의 소득수준이(Choi, 2006) 그리고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Choi, 2010)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인임을 보여주는 연구결과도 제시되었다. 하지만 가구소득과 양육스트레스는 관련이 없다는 연구결과들도 보고되었다(Cha, 2005; Kim, 2008; Kim, 2009; Lee, 2008; Park, 2002; Park, 2004; Yu, 2001). 특히 영아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가구소득을 다룬 국내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기혼여성의 경제적 활동 참여율이 높아지고 남성들의 부모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함께 살펴보는 연구가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Chang, 2008; Kalil, Ziol-Guest, & Coley, 2005; Kim, 2000; J. Kim, 2005; Kim, 2010; Lee, 2003; Lee, 2005; Lee, 2007; Lee, 2008; Lee, 2010; Shon, 2010; Yu, 2001). 선행연구결과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Lee, 2005; Lee, 2008),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Kim, 2008; Oh, 2001) 남편의 양육참여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Chang, 2008; Kalil et al., 2005; Kim, 2000; J. Kim, 2005; Kim, 2010; Lee, 2003; Lee, 2007; Lee, 2010; Shon, 2010; Yu, 2001). 하지만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이에 유의한 상관이 없다는 결과들도 보고되고 있으며(Chung, 2009; Jun & Park, 1996), 3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Kang & Cho, 1999).

가구소득은 배우자의 양육참여도에도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으로 나타났다(Kim, 2000; Y. R. Kim, 2005; Lee, 2008). 가구소득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배우자의 양육참여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는 결과도 제시되고 있으며(Lee, 2008), 일부 연구결과에서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배우자의 양육참여도가 더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Kim, 2000; Y. R. Kim, 2005).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관계는 가족 안에서 좁게는 자녀의 양육을 담당하는 부모역할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넓게는 부부관계와 자녀의 가치까지 포함하는 가족관계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부부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Hur, 1992; Kim, 1997; Park, 2009),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에 대한 가치와 관련이 있음을 암시하는 연구결과(Ispa, Sable, Csizmadia, & Csizmadia, 2007)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나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가족관계의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결혼만족도나 부부갈등을 포함한 배우자와의 관계 변인과 자녀의 가치로 살

펴본 부모됨의 의미를 포함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다룬 선행연구결과들을 이용하여 각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기로 하겠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인이라는 주장은(Crnic & Acevedo, 1995) 우리나라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서도 지지되었는데 배우자와의 관계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Park, 1994). 결혼만족도가 낮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그렇지 않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보다 높다는 연구결과와(Choi, 2006; Kim, 2002) 결혼만족도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데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연구결과들은(Jun & Park, 1996; Park, 2004) 부부관계의 질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인임을 보여주고 있으나, 결혼만족도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의한 상관이 없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H. Kim, 2005). 결혼만족도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이었으나, 부모역할관과 자녀가치관을 추가로 투입하였을 때 유의한 영향력을 상실하였다는 연구결과는(Kim, 2009) 양육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의 관계가 다른 가족관계 변인들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부부관계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부부 적응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Kim, 2008), 부부관계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결과도 보고된다(Hur, 1992; Kim, 1997; Park, 2009). 만2-3세 자녀를 둔 아버지가 연구대상인 연구결과에서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도에 대한 예측력은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았고(Kim, 1997), 부부간 일치도가 높을수록 양육참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Hur, 1992).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관계와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Park, 2009). Shin(2007)의 연구에서 아버지의 결혼만족도는 아버지의 부모역할자신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부모역할자신감이 양육참여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여 결혼만족도가 양육참여에 간접적으로만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결혼만족도와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이 없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되었다(Y. Kim, 2005).

양육스트레스와 부부관계를 다룬 연구들 중 일부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포함시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부부관계 간의 관계를 밝히려 노력하였다. Lee(2003)의 연구에서는 만 3세에서 만 6세 자녀를 둔 부부를 대상으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과 두 변인 사이에서 부부관계가 담당하는 역할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아버지의 양육참여만을 이용하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하였을 때,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인이었다. 하지만 부부관계를 통제 후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부부관계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간접 효과만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결혼만족도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하는데 유의한 변인이 아니었으나, 사회적 지원체계와 어머니의 전통적 역할관을 추가로 투입하였을 때 배우자의 양육참여도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Kim, 2000). 이러한 결과들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와 배우자의 양육참여 그리고 부부관계가 서로 역동적인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자녀에 대한 가치를 다룬 연구는 다양하지 않다. 자녀가치관을 거시체계 변인으로 선택하여 살펴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녀가치관은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하는데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밝혀졌다(Kim, 2009). 이와 같은 결과는 자녀가치관을 조사한 척도의 문항들¹⁾이 주로 양육부담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존재를 부정적으로 볼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임신에 대한 수용여부와 양육스트레스의 관계를 살펴본 외국의 연구 결과에서 임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데 유의한 변인임을 보여주었다(Ispa et al., 2007). 임신에 대한 수용적 태도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동시에 자녀에 대한 긍정적 가치를 반영하고 이는 결국 출산 후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하는데 유의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Kang(2000)의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하여 자녀관을 ‘충실·삶의 보람’ ‘경제부담·심리적 제약’ 그리고 ‘가(家)의 계승’ 세 요인으로 나누어서 부모의 양육행동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에서 아버지들이 자녀에 대해 ‘충실·삶의 보람’ 가치를 높게 가질수록 아버지들은 관심과 애정이 높은 양육행동을 많이 보였는데 이는 자녀가치가 양육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부모됨에 대한 의미를 보여주는 자녀에 대한 긍정적 가치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참여를 다룬 연구결과는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1) 척도에서 사용하는 문항의 예를 들자면 ‘무자식이 상팔자’,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 없다’ ‘부모는 문서 없는 종이다’ 등이다.

양육스트레스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신생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배우자의 양육참여가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으나 부부관계와 자녀가치관을 포함하여 변인들 간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연구도 그 내용과 수가 제한되어 있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양육의 역할분담에도 관심이 주어져야 하겠지만 부부관계와 가족 내에서의 자녀의 가치가 갖는 역할로도 그 관심의 폭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 가족의 경제적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소득수준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배우자의 양육참여와 부부관계와 자녀가치가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다룬 연구는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배우자의 양육참여, 부부관계 그리고 자녀가치가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배우자의 양육참여, 부모의 부부관계와 자녀가치에는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배우자의 양육참여에 부모의 부부관계와 자녀가치가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는 어떠한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 <연구문제 3>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배우자의 양육참여, 부모의 부부관계와 자녀가치가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는 어떠한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있는 종단적 연구인 『한국아동패널 2008년』에 참여한 2,078명의 신생아 자녀를 출산한 가구 중 부부가 모두 초혼이며 첫 자녀를 출산한 728가구에서 부부가 함께 거주하지 않는 42가구, 자녀를 위탁하여 양육하는 14가구, 부부 중 한사람이라도 한국국적이 아닌 6가구, 그리고 부부가 장애가 있다고 대답한 12가구를 제외한 654가족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자녀의 특성과 가족의 가구소득(Table 1 참조) 그리고 부모의 특성(Table 2 참조)으로 살펴본 본 연구대상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Table 1에는 연구대상 가구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리고 가구소득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 연구대상 가족 자녀의 성별은 남아가 52.8%, 여아가 47.2%로 남아의 비율이 여아보다 조금 높았고, 자녀의 연령은 4개월에서 10개월 사이의 분포를 이루고 있으나 5개월 된 아동의 비율이 전체의 67.7%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아동의 평균 연령은 5.39개월이었다. 낮 시간에 자녀를 돌보는 주양육자는 87.8%가 어머니였으며, 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는 응답은 12.4%를 차지하고 있었다.

가구의 경제적 형편을 살펴보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900만원으로 나타났고, 201만원에서 300만원에 해당하는 가구는 654가구 중 235가구로(35.9%)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연구대상가구의 평균 가구소득은 307만원이었다. 백분위로 살펴본 연구대상 가구소득의 분포는 하위 25%가 200만원 이하, 전체의 50%가 280만원 이하의 소득을

<Table 1> Child's gender, age and household income (N = 654)

Child		Freq.	%	Income		Freq.	%
Gender	Male	345	52.8	Level (10,000w)	Less than 100	4	.6
	Female	309	47.2		101~200	179	27.5
Age (month)	4	42	6.4	201~300	235	35.9	
	5	443	67.7	301~400	134	20.5	
	6	93	14.2	401~500	63	9.6	
	7	37	5.7	501~600	14	2.1	
	8	30	4.6	601~700	2	0.3	
	9	8	1.2	701~800	10	1.5	
	10	1	.2	801~900	8	1.2	
				No response	5	.8	
<i>M(SD)</i> 5.39(0.97)				<i>M(SD)</i> 307(138)			
Primary caregiver	Mother	574	87.8	Percentile	25%	200	
					50%	280	
					75%	365	
	Others	80	12.2	Mode(freq.)	300(93)		

갖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가구소득이 365만원 이상부터는 상위 25%에 속하는 분포를 이루고 있었다.

Table 2에는 연구대상 부모의 개인적 특성이 제시되어 있다. 부모 모두 학력에서 대학교 졸업이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어머니

<Table 2>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child's parents (N = 654)

Variables		Mother		Father	
		Freq.	%	Freq.	%
Education	No school	1	.2		
	Middle school	1	.2	4	.6
	High school	179	27.4	180	27.5
	Community college	198	30.3	145	22.2
	University	226	34.6	264	40.4
	Master degree	45	6.9	57	8.7
	Doctorate	0	0	1	.2
	No response	4	.6	3	.5
Occupational status	Worker	195	29.8	647	98.9
	Students	4	.6	1	.2
	Housewife	454	69.4	4	.6
	No response	1	.2	2	.3
Age (unit : year)	Min. - max.	19 - 46		22 - 48	
	<i>M(SD)</i>	30.2(3.58)		32.6(3.86)	
Marriage duration (unit : year)	Min. - max.	0 - 14			
	<i>M(SD)</i>	1.75(1.82)			

34.6%, 아버지 40.4%), 어머니들의 학력이 아버지들의 학력보다는 그 수준이 조금 낮았다. 어머니들의 69.4%는 전업주부였고, 29.8%의 어머니들이 직장을 갖고 있었고, 아버지들의 경우에는 98.9%가 직장생활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30.2세이고, 아버지의 평균연령은 32.6세로 나타났으며, 부부의 결혼기간은 1년 이내에서 14년까지 분포를 이루고 있었으며 평균 결혼기간은 1.75년이였다.

2. 연구도구

한국아동패널 2008년 1차년도 연구대상에 적용한 연구도구들²⁾ 중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에 해당하는 10개의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척도의 구성은 5점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alpha = .83$ 으로 나타났다.

2) 아버지의 양육참여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어머니들에게 자녀 양육시 남편의 협조에 대한 정도를 측정하는 4개의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척도의 구성은 5점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남편의 양육참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alpha = .74$ 로 나타났다.

3) 부부관계

본 연구에서 부부관계는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결혼만족도는 4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남편과 아내가 각각 응답하였다. 척도의 구성은 5점 척도로 1점 ‘매우 불만족’에서 5점 ‘매우 만족’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생활이나 배우자의 부모역할에 만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부인은 .92, 남편은 .91로 나타났다. 부부갈등 역시 남편과 아내가 응답하였는데 8문항으로 구성되었고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간의 갈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부인의 경우 .91 그리고 남편의 경우에는 .89로 나타났다.

4) 자녀 가치

자녀가치는 부모로서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동기를 측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자녀가치는 정서적 가치(3문항)와 도구적 가치(4문항)로 이루어져있다. 정서적 가치 척도는 부모가 되는 일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며, 자녀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더 굳건해지거나, 노후에 덜 외로울 것이라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족 간의 정서적 관계에서 자녀가 차지하는 비중을 측정하고 있다. 도구적 가치 척도는 결혼한 부부는 대를 잇기 위해서도 자녀가 있어야하며 노후에 자녀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와 같은 내용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자녀가

2) 보다 자세한 변인과 도구에 대한 설명은 한국아동패널 2008(Shin et al., 2008)에 제시되어 있다.

사회와 가족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의 중요성을 측정하고 있다. 척도의 구성은 5점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졌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정서적, 도구적 가치를 높게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정서적 가치에서는 부인 .59, 남편 .61로 다른 도구들에 비해 신뢰도가 낮게 나타났고, 도구적 가치에서 부인 .72, 남편 .73으로 나타났다.

5) 가구소득

본 연구에서 가구소득은 한국아동패널 2008년 1차년도 자료에서 제공한 월평균 가구소득의 응답분포를 이용하여 가구의 비율을 고려하여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에 해당하는 28.2%를 ‘낮은 집단’, 210만원에서 350만원 사이에 해당하는 45.1%를 ‘중간 집단’, 그리고 360만원에서 900만원 25.5%를 ‘높은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Table 3 참조).

<Table 3> Frequency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 by income groups (N = 649)

Income group	Household income (10,000 won)	Frequency	%
Low	Less than 200	183	28.2
Middle	210 ~ 350	293	45.1
High	More than 360	173	26.7
Total		649	100.0

III 연구결과

1. 소득수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양육참여, 부부관계와 자녀가치

소득수준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 그리고 부모의 자녀가치에 대한 일변량분석 결과가 Table 4에 제시되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어머니가 보고하는 양육스트

<Table 4> Results of one-way ANOVA by income groups : Mean(SD)

Income group	var. Stress	Mother					Father			
		Father involvement	Satisfaction	Conflict	Emotional	Instrumental	Satisfaction	Conflict	Emotional	Instrumental
Low	27.93 ^a (6.28)	14.26 ^b (2.88)	15.10 ^b (3.12)	16.44 ^a (6.14)	13.32 (1.65)	11.87 (3.23)	17.43 (2.79)	14.60 (5.53)	13.63 (1.47)	13.11 (3.18)
Middle	26.11 ^b (5.70)	15.04 ^a (3.18)	15.96 ^a (2.84)	14.34 ^b (5.93)	13.45 (1.53)	11.79 (3.08)	17.60 (2.40)	14.07 (5.27)	13.63 (1.37)	12.63 (3.11)
High	25.98 ^b (5.90)	15.16 ^a (3.04)	16.22 ^a (3.04)	14.54 ^b (6.18)	13.48 (1.59)	11.60 (3.24)	17.40 (3.00)	13.97 (5.57)	13.59 (1.48)	12.41 (3.27)
Total	26.59 (5.97)	14.85 (3.08)	15.78 (3.00)	14.99 (6.11)	13.42 (1.58)	11.76 (3.16)	17.50 (2.68)	14.19 (5.42)	13.62 (1.43)	12.70 (3.18)
F value	6.49***	4.79**	7.15***	7.36***	.60	.33	.37	.66	.04	2.12

p < .01. *p < .001.

레스는 소득수준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F = 6.49, p < .001$).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낮은 집단의 양육스트레스는 중간과 높은 집단의 양육스트레스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즉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의 어머니는 중간 혹은 높은 집단의 어머니들보다 양육스트레스를 더 높게 느끼고 있었다.

소득집단 간의 차이는 아버지의 양육참여($F = 4.79, p < .01$), 어머니의 결혼만족도($F = 7.15, p < .001$)와 부부갈등($F = 7.36, p < .001$)에서도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세 변인 모두에서 사후분석결과 낮은 집단이 다른 두 집단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즉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은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이 중간 집단이나 높은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이 다른 두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나 도구적 가치는 소득수준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아버지가 응답한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그리고 자녀의 정서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에서도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2. 소득수준에 따른 어머니가 지각한 배우자의 양육참여에 부부관계 및 자녀가치가 미치는 영향력³⁾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를 소득 수준으로 나누어 부부관계와 자녀가치를 이용하

여 살펴본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가 Table 5에 제시되었다. 처음 I 단계에서는 어머니가 보고하는 부부관계와 자녀가치 변인을 이용하였고, 다음 II 단계에는 아버지의 부부관계와 자녀가치 변인을 추가하여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가구소득 집단별로 나타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낮은 소득집단의 경우, 어머니의 부부관계와 자녀가치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의한 변인은 결혼만족도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부부관계와 자녀가치를 함께 고려한 II 단계에서도 역시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만이 유의한 변인이었으며, 어머니의 부부갈등이나 자녀가치 그리고 아버지의 부부관계나 자녀가치는 양육참여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중간 소득집단 I 단계 분석모형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인은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였으나, 아버지의 응답을 추가한 II 단계에서는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가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정서적 가치가 갖는 유의한 영향력은 사라졌다. 중간 소득집단의 경우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에 대해 정서적인 가치를 높게 가질수록 양육참여도는 높았다.

높은 소득집단에서는 낮은 소득집단에서 보여 주는 결과와 같았는데, I, II 단계 모두에서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만이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를 예측하는데 유의한 변인이었다. 높은 소득집단에서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설명하는 정도는 34%로 낮은 소득집단에서 보이는 20%와 비교하여 상당히 높았다.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부부관계와 자녀에 대한 가치가 갖는 영향력의 정도는 세 집단 모두에서 결혼만족도가 가장 크게 나타

3)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독립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다중공선성의 위험성을 살펴보았고 그 결과가 <appendix 1>에 제시되었다.

<Table 5>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f father involvement (β)

Income group	Low		Middle		High	
	Model I	Model II	Model I	Model II	Model I	Model II
var.						
Mother's						
Satisfaction	.390***	.414***	.553***	.558***	.645***	.650***
Conflict	-.110	-.157	.011	-.015	.119	.149
Emotional	-.033	.019	.133**	.096	.130	.113
Instrumental	.021	-.041	-.055	-.035	-.050	-.037
Father's						
Satisfaction		-.057		-.024		-.088
Conflict		.067		.051		-.071
Emotional		.049		.145**		.073
Instrumental		.075		-.031		-.012
<i>F</i> Value	11.91***	6.12***	37.96***	19.10***	23.82***	10.98***
adjusted <i>R</i> ²	.193	.200	.336	.350	.355	.340
ΔR^2		.007		.014		-.015

p* < .05. *p* < .01. ****p* < .001.

났고, 중간 집단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인이었다. 특히 높은 소득집단에서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를 예측하는데 그 정도가 크고 설명력도 높았다. 중간 소득집단에서만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가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더불어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예측하는 주요 변인이었다. 또한 아버지 변인이 추가되었을 때 낮은 집단이나 중간 집단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설명력은 별로 증가하지 않았고 오히려 높은 집단에서는 설명력이 줄어들어 아버지 양육참여에 아버지 변인은 거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3. 소득수준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배우자의 양육참여와 부부관계 및 자녀가치가 미치는 영향력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아버지의 양육참여,

부부관계 그리고 자녀가치가 갖는 영향력 정도를 소득수준 집단별로 살펴본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Table 6에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은 3단계로 진행되었는데 I 단계에서는 양육참여, II 단계에서는 어머니의 부부관계와 자녀가치, III 단계에서는 아버지의 부부관계와 자녀가치를 추가로 투입하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각 변인이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집단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낮은 소득수준 집단의 경우, I 단계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 변인이었으나, 어머니의 부부관계와 자녀가치를 추가한 II 단계에서 양육참여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II 단계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하는데 유의한 변인은 어머니의 부부관계와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도구적 가치로 밝혀졌다. 어머니 변인이 추가되었을 때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설명

<Table 6>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f maternal parenting stress (β)

Income group	Low		Middle		High				
	I	II	I	II	I	II			
Model									
Father involvement	-.204**	-.040	.035	-.230***	-.057	-.057	-.203**	.006	.021
Mother's									
Satisfaction		-.087	-.117		.015	-.006		-.043	-.068
Conflict		.346***	.447***		.354***	.367***		.337***	.318**
Emotional		-.115	-.097		-.135*	-.182**		-.135	-.098
Instrumental		-.139*	-.138		-.151**	-.152*		.058	.071
Father's									
Satisfaction			.046			.037			.019
Conflict			-.123			-.078			.010
Emotional			-.168*			.066			-.032
Instrumental			-.018			-.071			-.060
F Value	7.83***	10.40***	7.16***	16.15***	18.58***	10.41***	7.12**	6.56***	3.04***
adjusted R^2	.036	.205	.253	.050	.233	.241	.035	.144	.106
ΔR^2		.199	.048		.183	.008		.109	-.038

* $p < .05$. ** $p < .01$. *** $p < .001$.

력은 19.9%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III단계에서 아버지의 부부관계와 자녀가치를 추가로 투입하였을 때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도구적 가치의 영향력은 없어졌고, 어머니의 부부갈등과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만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낮은 소득집단에서 전체 변인을 이용하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을 때 어머니가 부부갈등을 많이 느낄수록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에 대해 정서적 가치가 낮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간 소득집단에서도 I 단계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낮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II, III단계에서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어머니의 부부관계와 자녀가치를 추가하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II

단계에서는 어머니가 지각하는 부부갈등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높이고 자녀의 정서적, 도구적 가치는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어머니 변인을 추가하였을 때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설명력은 18.3%가 증가하였다. 아버지 변인을 추가한 III단계에서도 II단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는데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가 갖는 영향력의 수준이 높아졌으나 설명력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높은 소득집단에서도 다른 2집단에서 보여주는 결과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I 단계에서만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이었고 II, III단계에서는 그 영향력을 상실하였다. 어머니 변인이 추가된 II단계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설명력은 10.9%로 증가하였다. II, III단계에서 모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인은 어머니의 부부갈등만이 유일하였다.

소득집단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부부의 부부관계와 자녀가치를 이용하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부부갈등과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가, 중간 집단에서는 어머니의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정서적 그리고 도구적 가치가, 높은 집단에서는 어머니의 부부갈등만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또한 세 집단 모두 양육참여만을 투입한 I 단계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의한 변인이었으나, 부부관계와 자녀가치 변인이 추가로 투입된 후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갖는 영향력은 더 이상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있는 종단적 연구인 『한국아동패널 2008년』에 참여한 2,078명의 신생아 자녀를 출산한 가구 중 결혼상태가 초혼이며 첫 자녀를 출산한 부부와 한 자녀로 이루어진 662 가구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의 가구소득을 낮은(200만원 이하), 중간 (210만원에서 350만원), 그리고 높은 (360만원 이상) 세 집단으로 분류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버지의 양육참여, 부모의 결혼만족도와 가족갈등, 그리고 자녀에 대한 정서적, 도구적 가치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부모의 결혼만족도와 가족갈등, 그리고 자녀에 대한 정서적, 도구적 가치가 미치는 영향력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아버지의 양육참여, 부부의 부부관계와 자녀에

대한 가치가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버지의 양육참여,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은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낮은 집단의 어머니들은 다른 두 집단의 어머니들보다 양육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이 더 높았고,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결혼만족도는 더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차이를 보였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Chung, 2007; Lee, 2010) 배우자의 양육참여도에 차이를 보였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를(Kim, 2000; Y. R. Kim, 2005) 지지하고 있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예측하는데 유의한 변인으로는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에서는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유일하게 나타났고, 중간 집단에서는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아버지의 정서적 가치가 유의한 변인이었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인은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자녀 양육참여에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은 예측력을 보였다는 선행연구결과를(Kim, 1997) 지지하고, 아버지의 결혼만족도가 양육참여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Y. Kim, 2005) 일부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인을 살펴본 결과, 세 집단 모두에서 어머니의 부부갈등이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인이었고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에서는 부부갈등만이 유의한 변인이었다. 낮은 집단에서는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가 높을 때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간 집단에서는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와 도구

적 가치가 낮을 때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이었으나 부부관계를 통제한 후에는 영향력을 상실하였다는 연구결과를(Lee, 2003) 지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중간 집단에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가치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데 영향력을 행사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양육스트레스를 낮추었다는 연구결과를(Ispa et al., 2007) 지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 사항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결과가 소득수준에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나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부부관계에 차이가 있으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인들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그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보다 낮은 집단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부부갈등이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난 결과는 가구소득에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의 역동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그치고 있다.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결혼만족도가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두 집단과 비교하여 더 적게 나타난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아직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미치는 부부관계의 역할이 가구소득에 따라 다른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구소득이 담당하는 역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소득수준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부부관계를 다룬 다양한 후속 연구를 통하여 이에 대한 이해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결과는 가구소득이 부부에게 갖는 역할 혹은 의미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소득수준에 따라서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에서는 차이가 나타났지만 아버지의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들이 아버지들보다 부부관계에 소득수준을 더 민감하게 반영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아직도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남성들이 가족을 부양하는데 여성들보다 더 큰 책임감을 지니고 있음에도 가구소득이 남편들의 부부관계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은 가구소득이 갖는 가치가 부부에게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이는 후속연구를 통해서 명확히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부부관계의 역동성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점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세 집단 모두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부관계의 특성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는 어머니의 부부갈등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인이었으나 결혼만족도는 그렇지 않았다. 아버지의 양육참여에는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갖는 영향력이 매우 높았지만 부부갈등은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이해하는데 부부관계의 어떤 부분을 이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단독 변인으로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하는데 유의한 변인이었으나 부부관계 변인을 추가하였을 때 영향력을 상실하는 변인들 간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결과에서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나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부부관계의 역동성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부부관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연구하는 추후 연구들을 통하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 관련 연구결과들에 대한 해석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아버지의 실제 양육참여와 어머니의 지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나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인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어머니가 응답한 변인들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종속변인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나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모두 어머니가 제공한 자료이었기에 어머니 관련 변인들이 더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아버지가 평가하는 부부관계는 일반적으로 관계 지향적인 어머니들에게 익숙한 개념인 부부갈등이나 결혼만족도가 아닌 다른 변인들을 통하여 볼 수 있을 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아버지들이 바라보는 양육스트레스나 양육참여, 부부관계에 대한 관점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양육스트레스나 양육참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모역할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도구개발을 포함하여 이와 관련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한 자녀가치 척도의 신뢰도는 다른 도구들과 비교하여 낮게 나타나고 있어서 본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주의를 요구한다. 자녀가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가구소득과 자녀가치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도 제시되고 있다. 가구소득에 따라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정서적, 도구적 가치는 중간

집단에서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는 낮은 집단에서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하는데 유의한 변인이었다. 중간 집단에서는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가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예측하는데 유의한 변인이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후속연구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연구대상이나 변인이 갖는 특성으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를 지닐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100만원 혹은 그 이하의 월평균 가구소득을 갖는다는 응답은 전체의 0.6%에 불과하다. 이러한 분포는 2인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비율은 전체 인구 중 10%를 차지한다는 통계청에서 집계한 2008년 4분기 가계소득 자료에서 보여주는 분포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그렇다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낮은 소득집단의 연구결과는 실제 낮은 소득집단의 현상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한 후속연구의 노력이 있을 때 가구소득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Cha, S. S. (2005). Parenting stress of employed mothers with young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 Chang, Y. E. (2008). A study on the effects of father's participation perceived by mothers with disabled children on mother's parenting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buk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 Choi, J. H. (2010). Pathways from socioeconomic

- status of families to children's self-esteem : Mediating effects of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Choi, S. A. (2006). A Study of factor analysis in mother's parenting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 Chung, A. N. (2007). Parenting stress of preschool children's mot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w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 Chung, Y. J. (2009). The relations among father's involvement in child-rearing,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parents' adjustment of children with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 Crnic, K., & Acevedo, M. (1995). Everyday stresses and parenting.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pp. 277-297). Mahwah, NJ : Lawrence Erlbaum.
- Hur, S. (1992). An analysis of the variables contributing to the father's role perceptions and involvement behavi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 Ispa, J. M., Sable, M. R., Csizmadia, N. P., & A. Csizmadia. (2007). Pregnancy acceptance, parenting stress, and toddler attachment in low-income black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9(1), 1-13.
- Jun, C. A., & Park, S. Y. (1996). The effect of parent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4(5), 115-129.
- Kalil, A., Zirol-Guest, K. M., & Coley, R. L. (2005). Perceptions of father involvement patterns in teenage-mother families : Predictors and links to mothers' psychological adjustment. *Family Relations*, 54(2), 197-211.
- Kang, H. K., & Cho, B. H. (1999). Dual-Career Parenting Stress : Effects of Mother's Values and Support systems. *Journal of Child Studies*, 20(2), 41-55.
- Kang, R. H. (2000). Career vs. Child : Differences in the child-Rearing Practices of Korean and Japanese Fathers. *Journal of Child Studies*, 21(2), 119-133.
- Kim, C. J. (2009).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ecological variables on mother's child rearing stress in dual career fami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gshi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 Kim, H. J. (1997). The variables related to father's child rearing practices and involvement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Kim, H. J. (2005). A comparative study on the stress of child rearing between a working mother in a dual-income family and a full-time housekeep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Graduate School of Social Development.
- Kim, J. (2005).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 rearing and mother's child rearing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 Kim, K. J. (2008). Relationship between the father's involvement in child rearing and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marital adjustment in a family having a child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 Kim, L. J. (2000). An ecological study on working mothers' parenting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duk Women's University.
- Kim, M. K. (2002). A study on mother's child rearing stress of 4-6 years old child. Unpublished master's thesis, Sangmyung University.
- Kim, S. H. (2010).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parenting stress on mothers of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 Kim, Y. (2005). Fathers of offspring with severe mental illness : Key factors related to fathers'

- participation in caregiv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ustin.
- Kim, Y. R. (2005). Public Policy and Paternal Involvement in Poor Families :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Intervention. *Korean Journal Of Clinical Social Work*, 2(3), 76-86.
- Lee, J. S. (2003). Fathers' childrearing involvement and mothers' childrearing stress.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3(3), 5-19.
- Lee, S. M.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chooler's temperament, father's child-rearing involvement, and mother's child-rearing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Catholic University.
- Lee, S. U. (2010). The effect of working mother's job characteristics, fathers' childcare participation, and parent-caregiver partnership on parenting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 Lee, Y. E. (2007). The effect of father's involvement in child rearing and mother's parenting stress on marital relationship.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Lee, Y. S. (2008).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 rear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w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 Oh, E. K. (2001). A research how parenting behavior by the working mothers, support of spouse and the degree of professional satisfaction affect the parenting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Mokwon University.
- Park, H. M. (1994). A study on parental stress based on the parenting of young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Park, S. S. (2004). A study on the parenting stress of the dual-earner mothers and fat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eongju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and Public Administration.
- Park, Y. M. (2002). Parenting stress of employed mot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 Park, Y. M. (2009). The relations between marital relationship and husband's involvement in child rearing perceived by mothers and their children's emotional compet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ungnam University.
- Shin, H. J. (2007). Effects of emotional climate in family of origin, marital satisfaction, and parenting role competence on father's parenting involve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buk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 Shon, J. I. (2010). Structural relationships of fathers' participation, mothers' stress and efficacy in parenting, family resilience of disabled children : Compared with non-disabled children famil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 Yu, H. Y. (2001). A study on the effects of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 care and social support on mother's parenting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2011년 10월 31일 투고, 2012년 2월 8일 수정
2012년 2월 10일 채택

<Appendix 1> Correlation matrix for study variables (N = 654)

		Mother					Father			
		Stress	Involvement	Satisfaction	Conflict	Emotional	Instrumental	Satisfaction	Conflict	Emotional
M o t h e r	Involvement	-.231***								
	Satisfaction	-.335***	.552***							
	Conflict	.425***	-.375***	-.643***						
	Emotional	-.257***	.207***	.250***	-.214***					
	Instrumental	-.180***	.066	.130	-.080*	.390***				
F a t h e r	Satisfaction	-.106**	.195***	.371***	-.319***	.140***	-.016			
	Conflict	.207***	-.248***	-.425	.578***	-.168***	-.037	-.463***		
	Emotional	-.134***	.190***	.161***	-.171***	.281***	.086*	.347***	-.286***	
	Instrumental	-.106**	.036	.011	.007	.125***	.401***	.040	-.057	.356***

* $p < .05$. ** $p < .01$. *** $p < .001$.